

대만 정권교체 이후의 독립추진 동향과 중국의 대응전략*

우병국**

- I. 서론
- II. 천쉐이벤 정권의 대륙정책
- III. 대만의 독립추구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대응
- IV. 현 단계 중국의 대 대만정책 평가와 전망
- V. 결론

이 글은 2000년 총통선거 이후 대만의 독립추구와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양안 간 긴장에 초점을 맞추어 대만 독립운동의 최근 경향과 중국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총통에 당선된 후 천쉐이벤이 중국에 대해 모종의 ‘선의’의 제스처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중국은 지난 4년간 줄곧 그의 진의를 의심해 왔다. 중국에 의하면, 천의 유연성은 결코 독립추구를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한 독립추구에서 암묵적인 독립추구로의 전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시각으로는 그가 과거에도 그러했고 장래에도 계속 독립을 선호할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인 것이다.

현재 중국의 대 대만정책의 중심의제는 대만문제가 중국의 경제발전을 지연시키거나 저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과 함께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아무래도 국가의 통합과 내부안정에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L2058).
필자는 본 논문에 대해 격려와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지 않으면 경제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경이 추구하는 것은 대만을 영원히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라고 하겠다.

금년 3월 20일 천쉐이벤의 재선과 제2기 집권의 시작은 양안 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왜냐하면 천이 선호하는 것은 2006년까지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2008년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대만의 사실적인 독립을 의미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 사태의 발전과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주제어: 兩岸關係, 대만의 정권교체, 대만의 대 중국정책,
중국의 대 대만정책

1. 서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만의 독립추진 움직임은 그 노골화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업문제, 三農문제 및 부패문제 등과 같은 중대 사안들 다음으로 가장 시급하게 여기고, 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일 것이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만의 독립 주장이 현실화 될 경우 이는 홍콩의 민주화 요구와 서부지역의 티벳(西藏)·신장(新疆) 자치구의 분리주의 운동을 자극하여 연쇄적인 독립투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3월 18일에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의 천쉐이벤(陳水扁)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양안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집권 후 천쉐이벤은 한편으로는 ‘일보전진 일보후퇴’(進一步, 退一步)¹⁾ 식의

1) 천쉐이벤의 대륙정책의 이러한 특징에 관한 분석으로는 Chien-min Chao, 2003, “One Step

파행적인 대 중국정책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점진적인 대만독립²⁾을 지향한 데 반해,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개선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을 먼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중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긴 하지만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게 될 경우 군사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누차에 걸쳐 천명해 왔다.³⁾

1995년 6월, 당시 대만총통 리덩훤이 미국을 방문하고, 거기에 대응해 1995년 8월과 1996년 3월에 중국이 대만 근해를 향해 미사일을 위협 발사함으로써 위기를 맞았던 양안관계는 그 후 첨예한 대립이 쌍방에 모두 유익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 양측 모두 다소 완화된 입장을 취해왔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중국과 대만이 각기 경쟁적으로 무기체제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상대방을 가상적으로 상정한 군사훈련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는 대만의 행동이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수 있겠다. 즉, 독립을 위한 법적 그리고 내부여론 수렴의 수순을 밟아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 외에도 유사시 중국 연해의 일부 발전지역과 삼사(三峽)댐 등의 특정 목표에 대한 선제공격설⁴⁾도 나돌 뿐 아니라 금년 7월 28일에는 처음으로 진먼(金門) 섬에서 중국 방향으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천췌이벤 정권의 언행에 대응해 중국은 최근 천췌이벤을 ‘문제아’(trouble maker)로 지목하고, 지난 2000년의 대만 총통선거 이후

Forward, One Step Backward: Chen Shui-bian's Mainland Polic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2(34), pp.125-143을 참조.

2) 謝郁·劉主雁, “臺灣當局‘漸進式臺獨’透視,” 『臺灣研究』, 2002年 第3期, 28-35쪽. 일부 중국학자들은 최근에 와서 ‘점진적 대만 독립’에서 ‘급진적 대만 독립’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3)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구실로는 첫째, 대만의 독립 선언, 둘째, 외세의 개입(대만과 외부 세력간의 군사동맹 체결, 셋째, 대만에서의 내란 발생, 넷째, 대만이 대규모 살상무기 보유시, 다섯째, 장기적인 담판 지연 등이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서 현재 북경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대만의 공개적인 독립선언, 군사적 공격 무기의 개발과 협상 의지의 결여 등 세 가지이며, 그 가운데서도 미국으로부터의 무기구매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 <http://www.atimes.com/atimes/China/FH21Ad05.html> 참조.

4) 『동아일보』, 2004년 6월 11일, A15면.

최근까지 지속한 ‘언행을 지켜보겠다’(聽其言, 看其行)던 유보적 입장에서 ‘말을 비판하고 행동을 저지하겠다’(批其言, 阻其行)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⁵⁾ 다시 말해, 중국은 이미 천췌이벤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완전히 철회한 듯 하다. 실제로 금년 초 대만 총통선거를 전후하여 중국의 연례 및 비정기적 군사훈련이 전보다 빈번하게 실시되었으며, 5월 20일의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는 중국의 전투기가 대만해협외 중양선을 넘어 도발적인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상황도 부단히 발생했다.

국제적으로 양안간의 긴장 혹은 평화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및 역내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비록 중국은 대만문제와 양안관계가 중국의 내정이며, 어떤 나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으나, 현재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들은 국제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다. 그 외에 일본, 호주 및 일부 아세안 국가들에 있어서도 대만해협 양안문제는 간단하게 중국의 내정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대만 모두와 근거리에서 인접해 있고 양측 모두와 상당한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남북한 관계, 한반도 통일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자 간의 무력충돌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미·중 관계의 경색은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한반도 안정과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대만간의 군사적 대립은 현재 다소 모호한 한·미·일 對 중국이라는 동북아의 전략적 구도를 한층 더 가시화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경제적, 지역적 영향을 모두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⁶⁾

5) 이와 관련한 중국학자들의 견해로는 “思想者論壇：兩岸關係未來四年展望” 『中國評論』, 2004年 8月號, 64-75쪽을 참조.

6) “중국-대만 대립,”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http://kida.re.kr/shell-cgi/www/wowwwdataread.pl?board=wowwwdata&y_number=66 (검색일: 2004. 03. 15).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2000년 5월 대만에 민진당 정권이 등장한 후 약 4년여 동안 발생한 일련의 대만 독립추진과 관련된 중대 사안들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그 전략과 전술의 지속 혹은 변화여부를 살펴보고 그것이 앞으로 양안 관계와 역내 국제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II. 천쉐이벤 정권의 대륙정책

대만의 2000년 총선거 결과 대만독립을 당장에 명시한 民主進步黨(이후 ‘민진당’으로 약칭)이 집권함으로써 1949년 이후 약 50년 간 지속되어 왔던 中國國民黨(이후 ‘국민당’으로 약칭)의 일당통치에 종지부를 찍게 된 사실은 대만 내부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초래했다. 본 절에서는 민진당의 대륙정책 변화과정을 간략히 요약한 후 집권이후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민진당 대륙정책의 변화과정

민진당은 과거 국민당 시절 ‘재야운동 세력’(黨外)이 발전하여 결성된 정당이다. 재야 시절부터 강한 대만독립 추구 색채를 띠고 있었지만, 1986년 9월에 처음 정당을 결성했을 때만 해도 대만 내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독립과 관련한 주장을 펼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 결과 창당초기에는 부득이하게 급진적인 독립주장과는 선을 긋고 우회적으로 ‘주민자결론’(住民自決論)을 내세우면서 “대만의 장래는 대만 전체주민이 결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 후 민진당 내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경향은 갈수록 팽창하여 1988년 4월17일의 ‘417결의문’(주민이 대만독립을 주장할 자유가 있다는 결

의), 1990년 10월의 ‘1007결의문’(대만의 현재 주권은 중국대륙과 외몽고에 미치지 않는다는 결의) 그리고 1991년 8월에는 ‘대만공화국 헌법초안’을 제시하는 등 점진적인 상승과 심화 단계들을 거쳐 1991년 10월에 가서야 비로소 ‘주권이 독립된 자주적 대만공화국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강령’(建立主權獨立自主的臺灣共和國基本綱領)을 당헌에 삽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만독립 정당’으로 탈바꿈했다.⁷⁾

이렇듯 민진당이 성립된 후부터 단지 5년이라는 시간 내에 대만독립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던 데는 그 과정이 본토출신 리덩훤이 총통의 집권과 대만 내부정국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1988년 1월 장징궈 총통이 사망한 후 리덩훤이는 당시 부총통 신분으로 총통직을 계승하여 한동안 ‘약세 총통’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 후 1993-1995년 사이에 국민당 내부의 정적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실권을 차지했다. 당 내부에서의 권력이 공고해지자 리덩훤이는 대 중국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대만 내부의 독립지지 세력과 합류하려는 진면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⁸⁾ 그 후 민진당의 성장과 2000년의 집권에 대한 암묵적인 지원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진당이 ‘대만독립 당 강령’(臺獨黨綱)을 제시한 후 다수의 대만 주민들은 민진당이 양안 관계를 전쟁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 결과 민진당은 1991년의 국민대회 대표 선거, 1993년의 省長선거 및 1996년의 총통선거 등에서 그다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후 민진당은 더 이상의 노골적인 ‘대만 공화국’ 주장을 지양하고 ‘대만독립 당 강령’(臺獨黨綱)에 ‘사실상의 독립’이라는 걸음을 입히게 된다. 즉, 1999년 5월 8일 개최한 민진당 제8기 제2차 전국 대표자대회에서 ‘대만의 장래에 관한 결의문’(臺灣前途決議文)을 제시했는데, 그 요지는 “대만이 이미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새삼 독립

7) 余克禮 等, “民進黨兩岸政策發展演變初探” 『臺灣研究』, 2001年 第2期, 14-16쪽 참조.

8) 孫代堯, 『臺灣威權體制及其轉型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年8月), 230-242쪽 참조.

을 선포할 필요가 없으며 독립된 현상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⁹⁾ 이 때부터 민진당은 과거 새로운 독립국가의 건립을 주장하던 데서 “현상유지가 곧 독립”임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이 때까지의 활동은 주로 ‘선언적’인 것에 그쳤고, 그것이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2000년에 정권이 교체된 이후의 일이다.

2. 천웨이벤 집권 후 대륙정책의 특징

먼저 정권교체 이후 대만의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당의 장기집권과 부패정치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한 의뢰심 또한 조장되어 정당간의 정권교체라고 하는, 서방 선진국가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민주정치의 과정이 대만에서는 ‘정국의 개벽’(變天)으로 여겨져 일시적인 적응불량증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더욱이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건국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한 번 바꿔보자”(換人做做看)던 것이 결과적으로 리덩웨이(李登輝)가 집권 말기에 제기한 ‘양국론’으로 인해 이미 강경대치로 치달던 양안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심지어 군사적 위협이나 위기를 유발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유발한 것도 사실이다.¹⁰⁾

2000년 5월 20일 총통 취임 후 천웨이벤이 내세운 정책은 무엇보다 경제건설에 주력한다는 것이었으나, 그 후 양안 간 직항로 개설의 지연 등으로 인해 경쟁우위와 경제발전공간이 급격히 위축되고 투자환경도 악화되어 왔다. 다른 하나는 대개혁을 주창했으나 과거 12년간의 리덩웨이 집권기간에 남겨진 정치부패의 독소를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진당 자체의 금권유착마저 형성되어 국민의 원성을 사 온 실정이다.¹¹⁾

9) 邵宗海, 『兩岸關係: 陳水扁的大陸政策』(臺北: 生智, 2001년 11월), 30쪽.

10) 邵宗海, 위의 책, 10쪽.

11) 필자가 인터뷰 한 민진당을 지지하는 일부 학자를 포함한 다수의 대만 학자들은 민진당

대륙정책 방면에서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고 주장해 온 천쉐이벤(陳水扁)과 민진당은 국내정치 및 국제정치상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집권 후 바로 독립을 선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만독립 조항이 포함된 黨章(당헌)을 고수하고 있고 점진적인 독립노선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어서 리덩훤이 집권 시에 형성된 양안 간 정치적 냉담기가 4년여 동안 지속되어 왔을 뿐 아니라, 최근(2004년 3월)에 실시된 총통선거에서도 근소한 표차로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4년간 천쉐이벤이 선거기간 중에 제시한 2006년 신 헌법 제정 및 2008년 실시라는 공약¹²⁾의 추진 여부가 앞으로의 양안 관계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선거 기간에 발생한 각종 의문들로 인한 내부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또 야당이 선거 직후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도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대만의 내부 정치와 대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지는 아직 더 두고 보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천쉐이벤의 집권 제2기는 이미 시작된 상태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쉐이벤의 집권확정은 곧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건 대만독립의 지속적인 추진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천쉐이벤과 민진당의 대륙정책에서 기본적인 사고의 배경역할을 하는 인식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양안관계에서의 모순을 파악함에 있어서 북경의 대만에 대한 적대감을 대항국면을 초래한 주원인으로 보고, 생활방식과 민주제도의 차이가 큰 점을 양측이 융합할 수 없는 이유로 내세우며, 대만의 정책적 딜레마를 중국 시장에서의 이익도 추구하면서 자신의 안전도 고려해야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¹³⁾

이 집권한 이후 급속도로 과거 국민당의 부정적인 면을 모방하고 답습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 12) 이는 분명히 베이징 올림픽이 2008년에 개최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즉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라는 두 가지 국가적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므로 대만 문제는 자연히 중국 지도자들의 제1관심사에서 밀려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대만에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장 먼저 표명한 사람은 리덩훤이 전 총통이다.

13) <http://www.future-china.org.tw/links/plcy/dpp/abian-mind.htm>(검색일: 2004. 07. 05).

천쉐이벤의 대륙정책의 기초는 2000년 총통선거 기간 중에 내 놓은 『신세기 중국정책백서』에서 ‘평등, 평화 및 미래를 미리 설정하지 말 것’ 등을 주장한데서 비롯되는데, 이는 후에 2001년 5월 18일의 취임 1주년 시에 민주, 대등 및 평화로 수정되어졌다.

다시 말해 민진당과 천쉐이벤의 현행 대륙정책 기초는 대만의 명확한 국가지위 확립에 대한 상호인식의 일치, 안정적 상호협조체제의 건립, 그리고 경제무역 방면의 협력관계 발전에 있다. 그러나 대만의 명확한 국가지위 확립은 양안간의 가장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서 대만독립을 우려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수용하기 힘든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천쉐이벤과 민진당은 집권한 이래 지속적으로 각종 수단을 동원, ‘1992년의 합의’(九二共識)¹⁴⁾를 반복하고 부인함으로써 해기회(海基會)와 해협회(海協會) 간의 대화의 기초를 상실하게 했고, 그로 인해 양안 간 대화와 협상의 문이 닫혀 지게 했다.

천쉐이벤은 먼저 2000년 5월 20일 총통취임연설 도중 ‘네 가지의 하지 않을 것과 한 가지의 없을 것’(四不一沒有)¹⁵⁾을 표방함으로써 중국 측의 의구심을 무마하고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선의’의 제스처¹⁶⁾를 보였다. 그 후 2000년 12월 31일 TV를 통해 방송된 신년 축사에서는 또 양안간의 화해에 진력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으며, 2001년 5월 27일 중남미 순방 도중 도미니카에서 수행기사와 가진 간

14) 1992년 중국과 대만은 어업분규, 문서공증 및 밀입국자 송환과 같은 당면 사안에 대한 실무접촉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당시 서로 대립하던 주권 주장에 대해 잠정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중국의 해협회와 대만의 회기회 사이에 “해협 양안에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海峽兩岸均堅持一個中國原則)”는 것을 각자의 주장대로 구두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이루어졌다. 孫代堯, 『臺灣威權體制及其轉型研究』, 241쪽.

15)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의사만 없다면 임기 내에 독립을 선포하지 않고, 국호를 개칭하지 않으며, 양국론을 헌법에 삽입하지 않고, 현 상황을 변화시킬 통일 혹은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를 폐지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선언. 邵宗海, 『兩岸關係：陳水扁的大陸政策』, 20쪽.

16) 이와 관련한 분석으로는 Chong-pin Lin, 2003, “Goodwill and Proactive Exchange Policy: How Taipei Manages the Cross-strait Rel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29), pp.711-716을 참조.

담화에서는 ‘신5불정책’(新五不政策)¹⁷⁾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담화에서 보여 지는 천췌이벤의 대륙정책의 특징은 그것들이 대부분 적극적인 추진방안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배제하는 수단으로서 열거되어진 것들로, 매우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선언들이라고 하겠다. 그 반면 이러한 선언들과는 달리 암묵적으로 대만 본토화를 추진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지속되어져 왔다.

천췌이벤을 위시한 대만의 현 집권층과 상당수의 독립 지향적인 대만 주민들은 양안 간 유사시에 미국이 대만을 지원할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중국의 무력위협에도 어느 정도 이골이 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의 강경한 반응과 미국의 거듭되는 난색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하며 미·중 양측의 반응을 탐색하기를 반복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표면상으로는 대만해협에서의 현상 파괴를 반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대만에 무기를 수출해 온 것과 중국의 반복되는 무력위협도 일종의 위협을 위한 위협에 그쳐 그다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점¹⁸⁾이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3년 말기에 접어들면서 중국과 선을 분명히 긋고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민진당 정부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즉 대만 행정원은 11월 20일 국민투표 관련 법안(초안)을 행정원내에 신설된 국민투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했으며, 27일에는 대만독립 안건을 배제한 야당의 국민투표법안이 통과되어 관련 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20일, 대만 대선 때 ‘미사일 구매 증가안’과 ‘양안협상안’ 등 현

17) ‘무기구매와 미국을 경유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정세를 오히려 악화시키지 않으며, 대만은 그 어떤 나라의 앞잡이도 아니고, 양안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와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며 양안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는 것. 鍾年晃·陳政鳳, “陳總統提兩岸政策新五不,” 『聯合報』, 2001年 5月 28日, 1면.

18) 사실 중국은 그 동안 말로만 대만을 위협하면서 실제 행동을 보인 것은 리덩훙이의 방미에 대해 경고하는 형식으로 공포탄을 쏘았던 것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결국 그 동안의 평화통일 노력도, 무력위협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었다.¹⁹⁾

천 총통의 집권 민진당은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4년간 경제 건설과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두 정책에서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마이너스 성장과 유래 없는 실업률 등 경제부진에 대한 야당의 질타로 지지율이 하락했으며, 국민당 련전(連戰)과 친민당 쑹추위(宋楚瑜)의 야당 공조체제가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자 금년 3월 20일에 치러진 총통 선거를 앞두고도 결국 과거에 각종 선거 때마다 해 왔던 것처럼 족군(族群)간 대립과 내·외성(內·外省) 간 모순을 자극하고 양안 간 대립을 조장하는 선거 전략으로 급선회했다.²⁰⁾ 즉,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거 전략으로 또 한 번 대만 독립이라는 카드를 꺼내 놓았던 것이다.

사실 금년 3월 20일에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 결과 천쉐이벤이 재선되면서부터 양안관계의 악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천쉐이벤과 집권 민진당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대만독립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민감한 사안인 국민투표를 총통선거와 연계시켜 실시하는 등 갖은 수단을 다 동원했다. 많은 의혹을 남긴 채 근소한 표 차이로 정권 유지에 성공한 천쉐이벤은 선거 직후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야당 지지자들의 시위와 국제적 이목 등을 의식해 저자세를 취하다가 대세가 확정된 듯하자 다시 양안관계에서의 기존 입장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거기에는 첫째, 계속 ‘일변일국론’으로 ‘하나의 중국론’에 대항한다는 것, 둘째, 이미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2006년에 신헌법을 제정하고 2008년에 그것을 실시한다는 것, 셋째, ‘일국양제’와 대만을 중국의 한 성으로 하는 통일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주권수호를 위해서는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것 등이 포함된다.²¹⁾

19) 국민투표 추진운동과 관련하여 천쉐이벤은 처음에는 ‘대만독립 국민투표’를 추구했으나 현재는 ‘통일에 관한 국민투표’를 지향하고 있다.

20) 이와 관련된 동향으로는 신 헌법 제정, 국호 변경, 국민투표 방식을 통한 제헌 및 국호변경 목적 달성, 신 헌법 채택의 시간표 제시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민당과 친민당(親民黨)의 정책관련 인사들은 독립추구세력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을 총통 선거를 ‘중화민국 대 대만공화국’, ‘현상유지 대 현상타파’의 구도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해석해 왔다.

21) 李洛川, “陳水扁騙盡天下人,” 『鏡報』, 2004년 5월號, 87쪽.

III. 대만의 독립추구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대응

지난 50여 년간의 중국의 대 대만 정책은 크게 1949년부터 1978년까지의 무력통일단계와 1979년 이후의 평화통일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평화통일 추구시기에 중국의 대 대만 정책을 제약해 온 요소로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원칙, 중국 내부 정국의 안정도와 경제력의 변화 및 정책의 조정, 국제사회의 반응, 그리고 대만 내부 상황변화의 변수 등을 들 수 있다.²²⁾ 이 절에서는 대만 내부 상황변화의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거기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천쉘이벤 정권에 대한 중국의 기본 인식

중국의 평화통일 정책은 대략 네 차례의 조정기를 거쳤다. 첫째는 1970년대 말 이전 ‘국민당에 희망을 걸자’는 구호 아래 제3차 국공합작을 실현하려는 시도를 하던 시기, 둘째는 1980년대에 들어와 ‘대만 당국과 대만 주민들에 희망을 건’ 시기, 셋째는 1990년대 중반이후 ‘대만 당국에도 희망을 걸지만 대만 주민들에 더 큰 희망을 건’ 시기, 넷째는 민진당 집권이후 ‘대만 당국에 희망을 건다’는 것을 빼고 ‘대만 주민에 희망을 건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기 등이다.²³⁾

민진당 정권이 등장하기 전에는 중국의 대만정책이 비교적 단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당 최상층부의 소수 지도자들, 특히 장제스(蔣介石), 장징궈(蔣經國), 리덩훤이 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진당 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는 정책 대상이 대만 내부의 상황변화에 따라 다원화하기 시작했다.²⁴⁾ 즉, 집권당으로서의 민진당과

22) 陳紅民, “五十年來大陸對臺灣政策考察,” 胡春惠主編, 『五十年來的香港, 中國與亞洲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香港: 珠海書院亞洲研究中心, 2001年 5月 10日), 746-758쪽 참조.

23) 蕭史, “中南海的對臺新政策,” 『鏡報』, 2004年 6月號, 40쪽.

24) 陳紅民, “五十年來大陸對臺灣政策考察,” 756쪽.

야당으로서의 국민당(國民黨), 친민당(親民黨), 신당(新黨) 및 리덩웨이(李登輝)를 정신적 지주로 하는 대만단결연맹(臺灣團結聯盟, 이하 ‘대련’(臺聯)으로 약칭), 그리고 중국에 투자한 대만 기업들 및 일반국민 등 여러 방면으로 나누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아무래도 현 집권당인 민진당에 초점이 맞춰졌음은 물론이다.

1986년에 민진당이 정식으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중국의 정계나 학계의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97년에 실시된 縣長 및 市長 선거에서 민진당이 대대적인 승리를 거둔 후야 비로소 민진당의 정치적 실력에 대한 관심이 중국에서 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2000년에 천쉐이벤이 총통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민진당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인사가 여전히 소수에 불과했다.²⁵⁾

민진당 정권이 수립된 후 중국의 대만정책은 대체로 다섯 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데, 기대의 단계, 테스트 단계, 인내심 한계의 단계, 의혹의 단계 및 결단의 단계가 그것이다. 즉 집권 초기의 기대가 점차 실망으로 바뀌고 급기야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즉, 현 정권과 대만 주민을 분리하여 상대하는) 쪽으로 변해갔다.²⁶⁾ 최근에 와서 2004년 3월의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은 또 한 번의 기대를 건 듯하다. 그러나 그것 역시 야당인 국민당과 친민당의 연합후보가 집권하는 데 대한 희망사항에 그쳤고, 결과는 예기치 못했던 총격사건의 발생으로 중국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나타났다.

그보다 앞서 2000년의 대만 총통선거 결과 새로 등장한 천쉐이벤 정권

25) 李清如, “中共積極建構對話管道,” 『新新聞週報』, 第696期, 42쪽.

26) 사실 천쉐이벤 집권 초기의 양안관계는 중국의 관망적 자세와 대만의 유화적 태도로 긴장 수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비록 군사훈련 실시 등 일부 긴장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대 중국투자증대와 통상 및 인적교류는 전에 비해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瞭望』 7月號에서는 새삼스럽게 과거 50년 간 북경의 대만에 대한 평화통일 정책의 과정을 회고하는 장문의 글이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북경이 그간에 지속적으로 성의를 보여 왔음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그와 같은 성의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양안간의 감정의 골만 더욱 깊게 했음을 반성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전술, 즉 무력으로 대만을 수복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에 대해 중국은 아마도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직면해서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은 천췌이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2000년 3월의 총통선거를 앞두고 ‘신 중간노선’(新中間路線)을 제시하여 자신의 대만독립 추구 색채를 희석함으로써 유권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 후에도 약세(여소야대) 정권의 안정을 위해, 또 미국으로부터의 환심과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취임식사에서 중화민국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대만 독립을 선언하지 않겠다는 것을 포함한 ‘5불정책’을 내놓았지만 그것 역시 그의 대만 독립 추구 성향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하나의 중국’문제를 고의로 회피하고, ‘5불 정책’의 전제 조건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뜻이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 등은 정권기반만 공고해 지면 언제든지 임의의 해석을 통해 ‘5불 정책’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²⁷⁾

이렇듯 천췌이벤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한 마디로 ‘뿌리 깊은 불신’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는 중국 지도부 내의 강경파들의 견해가 일조를 한 면도 있겠으나, 천췌이벤의 언행불일치 성향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선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의를 기초로 해야 하는데, 천췌이벤의 ‘선의’는 말뿐이고 실제로 추진할 성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호화를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²⁸⁾

결론적으로 천췌이벤은 리덩훤이와 같이 대만의 독립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과거 리덩훤이가 국민당의 주석이었다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아주 노골적으로 독립 추진을 할 수는 없었던 데 비해 천췌이벤은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원칙을 부정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독립을 추진하고 그것을 국제문제화 하려 한다는 점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인식이다.²⁹⁾

27) 朱陽明 主編 『2000-2001 國際情勢』(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7月), 165-166쪽.

28)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童振源, 2003, “中共十六大後對臺政策分析,” 『中國大陸研究』, 第46卷 第2期(3·4月), 43-44쪽을 참조.

29) 王永強 編 『正道·中國政治年報』(蘭州: 蘭州大學出版社, 2001年 4月), 430쪽.

2.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에 대한 반응

한편 중국은 천웨이벤이 민진당의 공식적 입장으로 제기한 '일변일국론'이 미국의 대만 지지에 대한 오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시정권 등장 후 대만 지도자와 관리들에 대한 방미 내지는 '경유외교'(過境外交)의 허용 폭을 늘리고 대만 안보에의 적극개입 의사를 밝혀 왔으며 국제무대에서도 대만에 대해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려 했던 것이 그런 오판을 낳게 했다는 것이다.³⁰⁾

그러나 중국은 그 이후에 나타난 미국 측의 행동으로 판단했을 때 미국은 '일변일국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거기에 동조하거나 보조를 맞추지 않고 오히려 경고를 했으며, 대만 측의 일방적인 언행으로 인해 오히려 미국과 대만간의 상호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웨이벤의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에 대해 중국이 선택했던 대응 방안으로는 대만의 동해안에서 해방군이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천웨이벤을 고립시키고 대만 주민이 중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양안 인민들이 법률상으로 한 국가 내에서 공존한다는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해방군의 군사행동이 대만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는 것이었는데, 후에 실제로 중국거주 대만인이 주민증(居民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중국의 대 대만 전략은 네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정치적인 면에서는 천웨이벤을 고립화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해 왔고, 외교적으로는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대체로 대만을 일정한 틀 속에 묶어둘 수 있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군사적으로도 충분한 준비와 상징적 위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³¹⁾ 이 네 방면 중에서 경제면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야는 양안이 서로 대치 상

30) 李紅·掌保靈, “從一邊一國論看當前臺美關係,” <http://www.crf.org.cn/newsletter/200210/002.htm>(검색일: 2004. 02. 28).

31) 裴敏欣主編, 『中南海的選擇』(新加坡: 八方文化, 2004年 2月), 298쪽.

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라는 추세만으로도 천췌이벤으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대만에 있어서 양안간의 군비경쟁은 감당 못할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³²⁾

기본적으로 중국은 민진당과 천췌이벤, 그리고 리덩훤이 전 총통이 이끄는 臺聯을 동일한 독립추구세력으로 보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대만 민족주의’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특히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본토화 운동을 ‘문화적 대만독립 운동’(文化臺獨)³³⁾으로 규정하면서 경계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당국이 중국문화 요소를 제거하고 대만의 주체적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길을 열고자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정권교체 이후 지금까지 천수이벤이 대만독립을 지향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려 한 데 반해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먼저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다만 최근에 들어 북경은 급격한 통일 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반면 민진당을 비롯한 대만독립 추구세력의 최근 동향은 서둘러 마지막 카드를 던지려 하고 있다. 즉 그 동안 미국 및 기타 국제기구의 힘을 빌려 국제적으로 ‘주권독립’의 지위를 제고하려던 일련의 우회전술 노력이 누차에 걸쳐 무산되자 대만 독립 카드를 던짐으로써 미국과 중국에 공을 넘긴 후 그 반응을 보는 전략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³⁴⁾

32) 민진당이 중화민국 국방정책 및 전략연구학회에 의뢰해 작성하고 2001년 2월 19일에 출간된 『中國軍事力基本報告』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이 이미 과거의 내항형 방어전략에서 외항형 적극방어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의 국방관련 투자비용은 대만의 7배로,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 보고는 또 중국이 대만을 겨냥하는 東風-15형(M9형) 근거리 지대지미사일 2003년에는 450기, 2005년에는 650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http://www.diic.com.tw/comment/921219-1.htm>(검색일: 2004. 03. 15).

33) 全國臺灣研究會 編, 『2001年兩岸關係研究報告』(北京: 九州出版社, 2003년 4월), 157-182쪽; 姚同發, “關於‘文化臺獨’的幾個問題,” 『臺灣研究』, 2001년 第3期, 52-55, 63쪽 참조.

34) 여기에 대응하는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중국에 투자한 대만상인(臺商)들이다. 실제로 최근의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번 선거기간 중에 중국대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만 상인들이 조직적으로 천췌이벤의 낙선운동을 전개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한편 중국은 과거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대만의 현 집권세력과 리덩훤이를 위시한 대만독립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할 경우 그것이 오히려 선거에서 그들을 돕는 결과가 되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제하면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³⁵⁾ 특히 금년 3월 20일에 있었던 대만 총통선거를 전후하여 천수이볜이 연속적으로 자극적인 독립관련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로 관망만 해 왔다.

그러나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한 중국 지도자들의 태도는 단호하다. 중국은 대만 독립 분쇄를 위해 무력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중국 내 경제건설의 후퇴나 베이징 올림픽 개최 무산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³⁶⁾

3. 군사력 강화와 지연전술을 통한 통일저지 정책에 대한 반응

비록 중국은 누차 “양안문제는 중국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미국 또한 “대만해협의 분쟁에 개입할 의사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천명해 왔지만, 리덩훤이의 방미로 인한 1995년과 1996년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사건, 1999년의 ‘양국론’ 및 2002년의 ‘일변일국론’ 등으로 인해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었던 사실들을 놓고

35) 실제로 지난 1996년의 총통 선거에서 리덩훤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중국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강력한 위협 수단을 사용했으나 오히려 대만인들의 대륙에 대한 경계심과 반발심만 높여 리덩훤이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또 2000년 대만 총통선거 직전인 3월 15일 제9기 전인대 3차 회의의 내외신 기자회견 석상에서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주룽지(朱鎔基)가 강경한 어조로 ‘누가 집권을 하든 절대로 대만 독립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 오히려 대만 주민의 반 중국 여론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中國時報』, 2000年 3月 16日, 1면.

36)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설사 중국의 경제발전이 20년 후퇴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대만의 독립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볼 때 미국이 항상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며 개입했던 흔적이 보인다. 결국 ‘대만문제의 해결’은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먼저 미국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지 않고서는 대만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³⁷⁾

중국의 군사안보 관련 학자들은 대만이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군사력(특히 방공 및 대미사일 전력)을 부단히 증강하여 중국에 대항하려 하며, 지연전술을 통한 통일저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³⁸⁾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양안관계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여를 극도로 경계해 왔는데, 특히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과 국제 외교무대에 서의 지원 등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해 왔다.³⁹⁾

양안 관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외부 변수인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에 중국의 군사 공격에 대비한 아파치 공격용 헬기, PAC-3 요격미사일,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시스템, 디젤동력 잠수함 등을 판매할 계획에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입장을 지지하여 반대를 하는 식으로 양안 간의 긴장관계를 교묘하게 조장하고 활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만해협 안보구도에 대한 영향력도 경제력의 발전과 더불어 다중적인 면모를 띠기 시작했는데, 중국 지도자들이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경제력을 이용하여 대만문제를 처리한다면 예기치 못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⁴⁰⁾ 양안 간의 경제교류 및 투자관계가 날로 밀접해짐에 따라 대만해협의 안보구도에도 변화가

37) 邵宗海, 『兩岸關係:陳水扁的大陸政策』, 5쪽.

38) 朱錫明 主編, 『2000-2001戰略評估』, 166쪽.

39) 대만은 1971년 11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상실하면서 외교적 위기를 맞았으며 그동안 외교부를 자조적으로 ‘斷交部’라 부를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극히 불리한 위치에서 중국과 경쟁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매우 제한된 자원을 극대화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를 대내용으로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농후하다. 그러므로 지난 번 부시-원자바오(溫家寶) 회담에서 부시가 던진 메시지도 일종의 균형정책으로 해석했다.

40) 全國臺灣研究會 編, 『2001年兩岸關係研究報告』, 80-81쪽.

발생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무게중심이 점차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2년 10월 하순 미국을 방문한 장쩌민(江澤民)이 부시와의 회담 중 중국이 대만을 향해 배치한 미사일의 철거와 미국의 대 대만 무기수출 감소를 교환조건으로 제시했을 때 미국측의 반응은 당황과 침묵으로 일관했던 점을 봐도 대만해협 안보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

즉 중국은 이미 우회적으로 미국을 통해 대만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대만의 독립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점에 점차 매력을 느끼고 있는 듯해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의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의 경제력이 꾸준히 성장하고 외환 보유고도 신속히 누적됨에 따라 중국의 국방예산도 최근 수년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였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첨단 무기와 군사기술을 도입하는 등 주목할 만한 행보를 계속 해 오고 있다. 현재 중국이 진행 중인 전략적 군사력 강화조치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핵추진 대륙간 미사일 탑재 잠수함이고, 둘째는 레이저 킬러위성을 이용해 전역 인공위성의 파괴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셋째는 레이더 위성 및 전 세계 위성의 위치파악 시스템과 함께 지대지 및 대함 스커드 미사일의 보유 등이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대만해협에서 유사시에 미군의 직접개입을 억제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 및 한국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듯하다.

한편 미국은 대만 총통선거가 끝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대만에 대해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장거리 레이더를 판매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으며 대만 측은 4월 1일 ‘미사일 사령부’를 신설하고 기존의 헨궁(天宮) 미사일을 기초로 중국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에는 30기의 사거리 2,000km의 중거리 유도탄과 120기의 사거리 1,000km의 단거리 유도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통일법의 제정을 통한 대응을 들 수 있겠는데, 1996년 이후 특히 1999년 리덩훤이가 ‘兩國論’을 주장한 후부터 중국의 대만문제 전문가들은 ‘국가통일법’의 제정에 대한 구상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로 인해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금년 5월 중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유럽방문 시에 현지 화교가 재차 제기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공개 표명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중국의 신지도부가 법적 수단을 통해 통일을 촉진하는 것을 중시하고, 통일법(中華人民共和國統一促進法)의 제정을 통해 통일시간표를 확정함으로써 천췌이벤의 대만독립 시간표에 대응할 것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통일법의 제정은 두 가지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는데, 첫째는 천췌이벤과 민진당이 신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막고 통일 실현의 시간표를 제시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의 ‘대만관계법’에 대응하여 법리적으로 외국세력의 중국 내정간섭을 방지한다는 것이다.⁴¹⁾ 만약 천췌이벤이 선언한 바와 같이 대만이 2008년에 신 헌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중국 전인대가 내년 봄에 통일법을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바로 대만 독립세력에 대한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

IV. 현 단계 중국의 대 대만정책 평가와 전망

1995년 6월, 당시 대만총통 리덩훤이가 미국을 방문하고, 거기에 대응해 1995년 8월과 1996년 3월에 중국이 대만 쪽으로 미사일을 위협 발사한 이래로 양안 간의 정치적 관계는 계속 악화되어 왔다. 현 상황을 정

41) 蘇昌平, “北京警告臺灣當局面臨兩條道路選擇,” 『鏡報』, 2004년 6월號, 81쪽. 이에 대해 천췌이벤은 중국의 통일법 초안 마련 움직임을 직시해야 하며, 이는 법률전(法律戰)을 통해 법적 근원을 마련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취득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해 보면, 첫째, 대만독립 세력이 대만 내에서 갈수록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고 여론도 장악하여 쉽게 민심을 좌우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미국이 중국을 저지하면서 대만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적나라해지고 있다. 즉, 미국은 양안 간에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원치 않으나 어떤 형태로든 양안이 통합되는 것은 더욱 바라지 않는다는 것. 셋째, 중국은 천췌이벤을 위시한 대만독립 추구세력에 대해 이미 나름대로의 결론적인 판단을 내린 상태라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중국의 대 대만 무력사용의 구실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성숙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는 최근의 대만 ‘한광(漢光)20’ 훈련 중 미국의 고문단이 시종 훈련을 참관했으며 시뮬레이션 장비도 반입한 사실, ‘양장’(兩蔣) 시기와 비교했을 때 리덩훤이와 천췌이벤의 언행은 이미 확정적으로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1993년 회담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후속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던 사실 등이 포함된다.

다만 북경은 현 단계에서 ‘평화적인 부상’(和平掘起)을 원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실질적인 무력사용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협조를 구해 대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미국의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알고 있는 북경으로서는 계속 미국에 희망을 걸 수만은 없는 처지이다. 다음으로, 막연하게 대만 주민들에 희망을 거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 북경은 미국과 결정적으로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면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한편 천췌이벤 총통이 금년 3월 20일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재선됨으로써 양안 관계는 더욱 불안정한 국면을 맞게 됐다. 그 동안 줄기차게 대만 독립을 추진해온 천 총통은 재선된 후 기존의 예정대로 오는 2006년 독립을 겨냥한 신 헌법 제정의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고,⁴²⁾ 그에 대해 중국이 어떤 형식으로도 제동을 걸기 위해 필사적인

42) 『信報』, 2004년 3월 31일, 9면.

노력을 기울일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비록 천쉐이벤과 민진당이 이번 총통선거와 병행하여 추진한 국민투표가 성공하지 못했고, 선거과정에서 남겨진 많은 의문들이 대만 민주주의의 각종 폐단과 한계를 노정했지만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천쉐이벤이 600여만 표의 지지를 획득한 사실과 대만사회 내부에 형성된 정치적 분열의 심각화 등은 중국이 향후 대만 문제의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⁴³⁾

중국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은 이번 총통선거와 함께 진행됐던 ‘방위성 국민투표’에서 민감한 사안인 ‘미사일 구매 증가안’과 ‘양안협상안’ 등은 부결됐다는 점⁴⁴⁾으로, 이것은 향후 대만의 독립추진에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는 대만 주민들의 독립에 대한 속도조절(현상유지) 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⁴⁵⁾ 중국과 대만은 이러한 전제 하에 극적 타협의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국이 갖는 최대의 딜레마는 한편으로는 대만 내부정치에 대한 간섭을 자제함으로써 대만주민의 반발 심리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독립 추진세력이 그 틈을 타서 활동공간을 확대할 수 있었고 중국으로서는 대만

43) 唐文成, “國內政外交新戰略內情,” 『鏡報』, 2004年 5月號, 31쪽.

44)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사실상 양안관계라는 의제가 핵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총통선거와 더불어 방위성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되었다. 그 결과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수백 기의 미사일을 철거하지 않고 대만에 대한 무력 위협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만이 미사일 방어무기를 구입, 방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가의 여부를 묻는 첫째 의제인 ‘미사일 구매 증가안’은 45.17%의 투표율로 부결되었으며, 정부가 중국과 협상을 재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설정해나가는 것에 동의하는가를 묻는 둘째 의제인 ‘양안 협상안’ 역시 투표율이 45.12%에 그쳐 부결되었다.

45) 대만주민의 통일 혹은 독립과 관련한 여론은 대체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만 학자 陳義彥 등이 장기간에 걸친 여론조사를 토대로 실시한 분석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1년 사이에 대만주민이 ‘급속한 독립’이나 ‘급속한 통일’을 지지하는 비율은 5%를 넘지 않았고, ‘현상을 유지하며 추후에 상황을 봐서 통일 혹은 독립을 결정’하거나 ‘영원히 현상을 유지’하지는 주장은 매년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陳義彥, 陳陸輝, 2003, “模稜兩可的態度還是不確定的未來: 臺灣民衆統獨觀的解析,” 『中國大陸研究』, 第46卷 第5期(9-10月), 1-20쪽 참조.

내부에서 그러한 세력 확장에 대응할 만한 유효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
는 점이다. 결국 중국의 선택은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한 균형점
을 찾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학자들은 그 동안 천쉐이벤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내부적으로
상대적인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며, 그의 대륙정책은 ‘시간을 끌면서 변
화를 기다리는’ 지금까지의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리덩훙이
집권 후기와 마찬가지로 대륙정책, 외교정책 및 대만의 장래 등과 같은
문제에서 강경자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 섞인 전망을 해 왔다.⁴⁶⁾

중국은 또 선거 전에 이미 천쉐이벤 총통이 재선되고 동시에 실시되
는 ‘방위성 국민투표’에서 대륙에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가급적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국제여론의 지지 속에 평화통일 추진에 주력할 방
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당초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⁴⁷⁾ 그러나 어떤 경
우이든 대만 현 당국에 대한 정책은 통일촉진 보다는 독립반대를 기조로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와 함께 중국의 최대 현안중의 하
나인 양안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천쉐이벤의 총통 재선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
경파로부터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통일이라
는 최후의 카드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의 무력위협 수위가 대만의 독립추진 보조
에 정비례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금년 중반기에 대만 해협의 긴장
국면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은 푸젠성(福建省) 동산섬(東山島)에서 ‘해방
2호’(解放二號)로 명명된 3군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며 갈수록 거세지는
대만의 독립추구 경향에 대응하여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의 긴급 전시

46) 全國臺灣研究會 編, 『2001年兩岸關係研究報告』, 81쪽.

47) 사실 지난 일년 남짓한 기간 동안 중국이 지속적인 대만의 ‘도발행위’에 대해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연합이 천쉐이벤을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전제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간 뒤에는 중국
내부의 우려로 인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현재는 무력통일을 주장하는 그룹이 상승
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동원령인 국방동원 시스템을 연해 지역인 지난(濟南), 난징(南京), 광저우(廣州)등 3대 군구에서 이미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V. 결론

중국에 있어서 대만문제는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이며 또한 역사가 남겨 준 숙제이기도 하다. 거기에는 아편전쟁 이후 외세의 침략과 간섭으로 인해 겪었던 굴욕감과 좌절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 확보의 일환으로서의 민족주의 고취와 분리주의 차단정책 등이 얹혀 있다. 한편 국제적 요소(주로 미국의 역할)는 대만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이 역시 회피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평화 지향적 통일정책은 국민당 통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외견상 크게 변화된 점이 없고 여전히 유사시의 무력사용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력시위의 대상을 대만의 일반주민이 아닌 대만 독립 세력으로 한정시키고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점,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대만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우회적인 압력 전술을 사용하는 등 전술적인 면에서의 변화된 모습들은 경제건설과 안정을 최대 모토로 삼는 제 4세대 지도자들의 등장과 맞물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점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즉, 중국이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의 최고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안정추구 및 경제관계의 확대를 우선시 할 것이나, 한편으로 중국은 대만의 독립추진 경향에 대해서는 무력사용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대만이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지 않고 있고, 중국 또한 제한적인 군사훈련 혹은 무력시위를 통해 대만에 대해 경고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양측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국이 그 동안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해 왔고, 또 최근 들어 대만도 최신 무기장비 도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심지어 유사시에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향후의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천쉐이벤 집권 후 지속되어 온 ‘일보전진 일보후퇴’식의 점진적인 대만독립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천쉐이벤 집권2기가 사실상 시작됨에 따라 향후 4년간도 양안관계는 지난 4년과 마찬가지로 기복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년 5월 천쉐이벤의 취임식을 앞두고 중국정부는 중공중앙 대만판공실과 국무원 대만판공실에 권한을 위임, 대만에 대해 “벼랑 끝에서 말을 멈추든지(懸崖勒馬), 불장난을 하다 스스로를 태우든지(玩火自焚)”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력한 ‘최후의 통첩’을 했다.⁴⁸⁾ 현재 양안 간에 현상유지와 관련해 공유되고 있는 유일한 것은 법리상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규정뿐이다. 만약 천쉐이벤이 신 헌법을 제정하면서 영토규정에 대한 조항을 타이완(臺灣), 펑후(澎湖), 진먼(金門) 그리고 마쭈(馬祖)의 네 섬에 국한시키게 된다면 현상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측이 설정한 마지노선은 천이 신헌법의 제정을 통해 법리상의 대만독립을 실현시키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향후 ‘대만문제’에 대한 미·중간의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의 경우 중국의 대만침공 시에는 미국변수가 가장 중요한, 그러나 불확실한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낙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만약 의도하고 있는 장기적 목표대로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하는 가공할 보복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대만해협에 무력충돌이 발생했

48) <http://www.asianews.it/view.php?1=zh&art=800>(검색일 : 2004. 07. 15).

을 때 미국은 개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진행 중인 군사현대화의 양상을 분석해 보면 대만을 전면적으로 점령하는데 필수적인 해·공군 장비보다는 미사일의 개발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만에 대한 전면적인 점령이나 공격보다는 대만의 급진적인 독립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만과의 통일이 더 강한 중국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전쟁을 통해 국력을 소모하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의 양안관계에 있어서 안정과 평화의 여부는 대만의 독립추구 행보, 거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식과 미국의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관건적인 요소는 천췌이볜 정권의 선택에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陳義彥·陳陸輝. 2003. “模稜兩可的態度還是不確定的未來: 臺灣民衆統獨觀的解析.” 『中國大陸研究』 46(5). 9-10月.
- 全國臺灣研究會編. 2003. 『2001年兩岸關係研究報告』. 北京: 九州出版社.
- 裴敏欣主編. 2004. 『中南海的選擇』. 新加坡: 八方文化.
- 胡春惠主編. 2001. 『五十年來的香港, 中國與亞洲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香港: 珠海書院亞洲研究中心.
- 李洛川. 2004. “陳水扁騙盡天下人.” 『鏡報』. 5月.
- 李清如. “中共積極建構對話管道.” 『新新聞週報』 第696期.
- 邵宗海. 2001. 『兩岸關係: 陳水扁的大陸政策』. 臺北: 生智.
- “思想者論壇: 兩岸關係未來四年展望.” 『中國評論』. 2004年 8月號.
- 蘇昌平. 2004. “北京警告臺灣當局面臨兩條道路選擇.” 『鏡報』. 6月.
- 孫代堯. 2003. 『臺灣威權體制及其轉型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唐文成. 2004. “國內政外交新謀略內情.” 『鏡報』. 5月.
- 童振源. 2003. “中共十六大後對臺政策分析.” 『中國大陸研究』 46(2). 3-4月.
- 王永強編. 2001. 『正道-中國政治年報』. 蘭州: 蘭州大學出版社.
- 蕭史. 2004. “中南海的對臺新政策.” 『鏡報』. 6月.
- 謝郁·劉佳雁. 2002. “臺灣當局‘漸進式臺獨’透視.” 『臺灣研究』 第3期.
- 姚同發. 2001. “關於‘文化臺獨’的幾個問題.” 『臺灣研究』 第3期.
- 余克禮等. 2001. “民進黨兩岸政策發展演變初探.” 『臺灣研究』 第2期.
- 朱陽明主編. 2002. 『2000-2001戰略評估』.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 鐘年晃·陳敏鳳. 2001. “陳總統提兩岸政策新五不.” 『聯合報』. 5月 28日.
- Chao, Chien-min. 2003. “One Step Forward, One Step Backward: Chen Shui-bian’s Mainland Polic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2(34).
- Lin, Chong-pin. 2003. “Goodwill and Proactive Exchange Policy: How Taipei Manages the Cross-strait Rel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29).
- “중국·대만 대립,”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데이터베이스』.
http://kida.re.kr/shell-cgi/woww/wowwdataread.pl?board=wowwdata&y_number=66(검색일: 2004. 03. 15).
- Grinter, Lawrence E. “Five triggers for a Chinese attack on Taiwan,” Asia times Online,

Aug 21, 2004. <http://www.atimes.com/atimes/China/FH21Ad05.html> (검색일: 2004. 08. 22)

“北京發表聲明警告陳水扁,” 『亞洲新聞』, 2004年 5月 17日.
<http://www.asianews.it/view.php?l=zh&art=800>(검색일: 2004. 07. 15)

“陳水扁跨世紀中國政策的思考架構,” 『未來中國研究』, 2001年 2月 9日.
<http://www.future-china.org.tw/links/plcy/dpp/abian-mind.htm>(검색일: 2004. 07. 05)

“臺灣民進黨中國軍力基本報告,” 『全球防衛雜誌』, 2001年 2月 22日.
<http://www.diic.com.tw/comment/921219-1.htm>(검색일: 2004. 03. 15)

李紅·鞏保靈, “從一國一邊論看當前臺美關係,” 『改革開放論壇』.
<http://www.crf.org.cn/newsletter/200210/002.htm>(검색일: 2004. 02. 28)

ABSTRACT

Taiwan's Pursuit of Independence after the 2000 Presidential Election and China's Reaction

WOO Byeong-Gu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is article analyzes recent tendency in Taiwan's pursuit of independence and China's reactions to it. Especially, the analysis focuses on Taiwan's pursuit of independence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00 and subsequent cross-strait tensions.

It is true that since his election Chen Shui-bian has made some 'conciliatory' gestures to Beijing. But Beijing questioned his sincerity for the last four years. According to China, Chen's flexibility has not meant the abandonment of his pursuit of independence, but only a change from an overt pursuit of independence to a covert one. In China's eyes, Chen Shui-bian is unreliable and undesirable because he will pursue Taiwan's independence as he did before.

The main theme of China's current Taiwan policy centers on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hope that Taiwan issue should not delay or undermine China's economic development. Nevertheless, as for Chinese leadership, the highest priority still is to keep national unity and internal stability. Economic development will be delayed without these two conditions. Therefore, what Beijing seeks as of

now is the assurance that Taiwan will not be lost forever.

Chen's reelection to a second term as President of Taiwan raised serious questions about the future of cross-strait peace and stability again. Because Chen prefers to hold a referendum on a wholly new Taiwan constitution in 2006, which would be effective in 2008. It would mean *de facto* independence for Taiwan, but a nightmare for China.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cross-strait relations, we need to keep an eye on further progress and China's responses.

Key Words : Cross-Straits Relations, Regime Substitution in Taiwan, Taiwan's China Policy, China's Taiwan Policy